

# 국립목포대, 2030년 의대 입학정원 100명 확정 “환영”

## 순천대와 통합 ‘전남형 공공의료 인재’ 양성체계 구축

국립목포대학교는 정부의 2030년 개교 목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 배정 확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전라남도 서남권과 도서·농어촌 지역에 오랜 기간 겪어온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특히 섬과 농어촌 지역의 응급·필수의료 체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번 의대 입학정원 100명 확정 이라는 구조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목포대는 자평했다. 목포대는 이번 의대 정원 확정을 계기로 국립순천대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형 공공의료 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두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서남권과 동

부권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의료 교육·연구·수련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대학 체제 하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수련 기반 강화 ▲섬·농어촌·고령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 교육 모델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하며, 지역에 정주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인력 양성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

다. 또 국립목포대는 국립순천대, 전라남도, 관계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 의과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이번 의대 입학정원 100명 확정을 출발점으로 국립순천대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라남도형 공공의료 교육·연구의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 전남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든다 CCTV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9일 전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CCTV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CCTV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CCTV 설치·운영·폐기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

을 두었다. 아울러, 업무 지원 범위와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업무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CCTV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연수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학교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차량 저수지 추락 사고를 일부러 내 함께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성홍 지원장)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돼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복역하다 숨진 고(故) 장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 아내(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수사 경찰은 숨진 아내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토대로 장씨의 계획 살인 정황을 의심하기는 했으나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다.

## 23년 전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무기수 사후재심 무죄 차량 압수 위법 수집 증거... 졸음운전 가능성 배제 못해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아내를 숨지게 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일관되게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2005년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날 열린 재심에서는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다. 재심 재판부는 “저수지에서 인양한 차량 압수는 영장이 없고 영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수에 따른 감정 결과 역시 위법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어 배척한다”며 일부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졸음운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장씨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불만만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장씨는 졸음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거듭 주장했다. 공소사실처럼 교차로에서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향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도 충분히 저수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무의식, 반 무의식 상황에서도 차량을 어느 정도 왼쪽으로 조향할 수 있고 졸음운전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교차로 부근에서 고의로 왼쪽으로 운전대를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주장한 비행 동거인 보험금

가입 사실이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은 인정되나,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해서 고의 사고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형 확정 이후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장씨는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그러나 한 현직 경찰관이 자체 재조사 결과 ‘엠티리 수사’였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장씨는 2021년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다. 2024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장씨는 그토록 고대하던 재심 첫 재판을 보며 앞둔 같은 해 4월 백혈병 항암 치료 도중 숨졌다.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전민규 기자

## “귀성객 등 이용 급증” 정부, 설 연휴 여객선 안전관리 점검

### 김광용 행안부 재난본부장, 목포 찾아 현장 점검

정부가 설 연휴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남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연휴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 받고, 연휴 기간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협력 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 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9일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퀵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당시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퀵제누비아2호가 좌초됐지만, 승객과 승무원 총 267명이 전원 구조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상습 성추행’ 혐의 국립대 교수 징역 2년 법정구속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피아노 반주자 2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하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교수는 개인 지도 학생들의 반주를 맡는 여성들을 상대로 공연, 노래방 등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포옹이나 어깨동무를 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추행 고의가 없거나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었다” 등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교수는 장기간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고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엄속해야 할 교육계에서 스승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뉴스

## 광주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 시내버스 증차... 14~18일 특별교통대책상황실 운영

광주시가 설 명절 시민과 귀성객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차지구와 공동으로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국·시립묘지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조정한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설날 당일(17일) 30회 증차 운행하며 월남동·태평을 운행하는 지원15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을 경유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일부 노선을 조정한다. 주요 혼잡지역의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송정역, 종합버스터미널, 망월·영락공원 등 주요 교통 거점에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회

회원을 배치해 교통 정리와 주·정차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주차장과 280여개 공공기관·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산수·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서부시장, 남구 무등·봉선·백운대성시장, 북구 말바우·두암·운암·동부·서방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송정5일·우산매일시장 등 총 16곳이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등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단속을 유지한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설 연휴 기간 교통 혼잡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통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